펀드, 알고 보면 가장 안전한 재테크

분산 투자 원칙 · 시장 정보 확보가 관건

요즈음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다는 데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부동산을 사 두자니 지금은 아무래도 때가 아닌 듯하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미국이나 중국이 헛기침만 해도 출렁대는 통에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은행 역시 물가도 못 쫓아가는 낮은 금리가 영 믿음직스럽지 않다. 그나마 저축은행이 금리가 높다지만 목돈을 넣어 두기에는 근래의 부실 저축은행 사태가 영 께름칙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재테크는 펀드라고 외치는 이가 있다. 오건상(42) 대구은행 자산관리팀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오 팀장은 현재의 금융 환경을 "환자는 넘쳐나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는 격"이라고 진단한다. 저마다 돈 벌려고 이런저런 투자에 나서지만 수익을 올리는 이보다 손실 보는 이가 훨씬 많다. 그런데도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는 고객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상담해 줄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오 팀장은 신한은행 재직 당시 2년 연속(2003~2004년) 금융계 최고의 상품 판매 실적을 올렸고 각종 기관과 단체 등에서 자산 관리와 투자에 대한 교육을 1천여 회나 실시한 재테크 전문가로 최근 〈우리 가족 부자 되는 금융과 펀드 재테크〉라는 책도 펴냈다. 이런 그에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하소연에 뼈저리게 공감하던 시절이 있었다. 수억 원을 빚지고 자살까지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다.

그가 찾아낸 원인은 두 가지. 첫째는 주식 투자가 뭔지 잘 몰랐다는 것이다. 위험성은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수익률만 봤다.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 등 주식 투자의 기본 지식도 없었고 국내외 경제에는 더더욱 무관심했다. 둘째는 증권사 직원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다. 아는 게 없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너무 쉽게 휘둘렸다.

그래도 펀드밖에 없다

투자에는 종목마다 나름의 방법과 원칙이 있다. 그중에서도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투자 대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심낸다면 투기에 다름 아니다. 비교적 호황기였던 2007년에도 펀드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수익률이 좋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말이나 TV와 신문 등의 뉴스만 보고 이른바 '몰빵 투자' '묻지 마 투자'에 나섰다가 아직도 원금을 못 건진 사람이 부지기수다.

부동산, 주식, 펀드의 3대 재테크 수단 중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게 펀드다. 펀드는 본인이 직접 운용하지 않으며 투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적은 비용으로 고용하는 효과가 있다. 또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식과 광물, 곡물, 금 등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어 위험 분산이 비교적 용이한 것도 장점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펀드는 적은 돈으로도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출금이 자유로워 다른 투자 수단으로 옮겨 타기도 쉽다.

이 정도면 가장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펀드 투자에서도 재미는커녕 손해를 본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다. 함부로 뛰어들면 위험하기는 펀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펀드에 투자하려면 먼저 펀드 상담 역량이 뛰

부동산, 주식, 펀드의 3대 재테크 수단 가운데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게 펀드다. 펀드는 투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적은 비용으로 고용하는 효과가 있는 데다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식과 광물, 곡물, 금 등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어 위험 분산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오건상 대구은행 자산관리팀장은 현재의 금융 환경을 "환자는 넘쳐나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는 격"이라고 진단한다. 안전한 투자를 도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진_ **김영대** 기자

어나고 지속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금융기관부터 찾으라는 게 오 팀장의 권고다. 힘들어도 발품을 팔아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해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단, 아무 직원이나 붙잡고 상담을 시작하지 말고 펀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시장 분산의 원칙을 지켜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이 격언은 펀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펀드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다. 다만 분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분산에는 크게 시장 분산과 시기 분산이 있고 시장 분산은 다시 3단계로 나뉜다. 1차적으로는 위험 분산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장을 국내와 해외로 나눈다. 전문가들은 국내와 해외 투자 비율을 6대 4 정도로 추천하지만 상황에 따라 5대 5, 7대 3 등으로 조절하면 된다. 국내 시장이 불안해도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다.

2차적으로 국내 시장을 인덱스와 대형 우량주, 그룹주, 녹색성장주, 중소형주 등으로 나눈다. 인덱스 펀드는 1천 개가

넘는 상장 종목 중 우량 종목 200개만 편입된 코스피 200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클 때 위력을 발휘한다. 대형 우량주 펀드는 업종 대표주나 최우량 종목 위주로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70개 정도의 종목에 투자한다. 안전한 펀드로 인식되나 인덱스 펀드보다 위험이 다소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룹주 펀드는 삼성그룹주, 현대그룹주 펀드가 대표적이다. 인덱스 펀드나 대형 우량주 펀드보다 위험은 크지만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삼성과 현대 둘 다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흐름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가장 각광받는 녹색성장주 펀드는 풍력, 태양광에너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산업에 투자한다.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규모 환경 투자에 나서고 있어 전망이 밝은 편이다.

중소형주 펀드는 말 그대로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경기 회복기에는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지만 박스권을 거쳐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저평가됐던 중소형주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레버리지 펀드나 중도 환매수수료가 없는 펀드 등에 분산할 수도 있다.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며 투자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1.5레버리지 펀드는 지수가 상승하면 50%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면 50%의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단, 투자 규모가 커지면 주식과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전체 투자금액의 10~20%로 제한하는 게 적당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도 잘게 나눌 필요가 있다. 크게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원자재 시장으로 나뉘는 해외 시장은 국내에 비해 정보를 얻는 통로가 많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잘 아는 시장 위주로 투자하되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큰 시장의 비중을 높게 두는 게 낫다. 선진국 시장 펀드는 안정성은 높으나 기대수익은 낮다. 신흥국 시장 펀드는 수익성은 선진국 시장 펀드보다 높고 원자재 시장 펀드보다 낮지만 안정성은 그 반대다.

특히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시장은 투자를 고르게 늘리고 동남아와 중남미 시장은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원자재 시장 펀드는 은, 구리 등 산업재에 투자하는 광업주 펀드와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에너지 펀드, 농산물과 곡물에 투자하는 곡물 펀드, 금이나 금 관련 파생시장에 투자하는 금 펀드가 대표적이다.

■ **시장별 분산 방법**

시장 분산	비중	투자시장	주요 특징
국내(50%)	10	1.5레버리지 인덱스	코스피 200지수 1.5배 추종
		인덱스	코스피 200지수 추종
	20	대형우량주	20~70개 내외 우량기업에 집중 투자
	15	그룹주	삼성 관련 그룹에 투자
	15		현대 관련 그룹에 투자
	20	중소형주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투자
	20	녹색성장주	태양광, 풍력 등 녹색산업에 투자
해외(50%)	60	중국	경제성장률 9%대, 인플레이션 우려
		브라질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지
		인도	경제성장률 중국 추월 가능성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세계 최대 매장량
		아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주목
		미국	최근 전반적 경제지표 호전 중
	40	금	금광업종 직접 70%, 간접 30%
		광물	구리, 철광석 등 70%, 귀금속 20%
		에너지	석유, 가스 등 관련 회사 투자
		곡물	농산물, 곡물 관련 회사 투자

시기도 나눠라

시장과 함께 시기 분산도 필수적이며 투자 방법에 따라 적립식과 거치식 두 가지가 있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적립식 펀드는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되므로 특별히 투자시기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목돈이 없어도 되므로 종잣돈 만들기에 매우 효율적이다. 적립식은 특히 주가 하락을 즐길 수 있는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가가 하락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납입하는 게 좋다는 얘기다.

2008년 9월 금융 위기 발생 시점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많은 투자자가 적립식 펀드 납입을 중단했다가 원금을 회복하고 나아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상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가가 떨어지거나 여윳돈이 생기면 오히려 추가 불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만하다.

처음에 목돈을 투자하는 거치식 펀드는 저점을 잘 예측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거치식은 시기 분산이 관건인 만큼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두세 번, 또는 그 이상으로 투자금액을 나누는 게 이상적이다. 먼저 국내외 경제 흐름과 전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국내 경제 상황이 회복기인지, 성장기인지, 후퇴기인지 분석해 보고 우리 경제에 영향력이 큰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경제 상황과 유가 및 환율 추이도 살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향후 변곡점이 될 시기를 추정해야 한다. 변곡점이란 국내외 경제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업의 실적 공개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 등의 정책 발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 등의 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능한 투자자라면 이런 일정 정도는 꿰차고 있어야 한다.

이제 5천만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한다고 치고 정리해 보자. 1차로 1천만 원(20%)은 시기를 따지지 말고 바로 시작한다. 저점만 노리다가는 투자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2차 투자는 1천500만 원(30%) 정도로 잡고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3차 투자 역시 1천500만 원(30%)으로 시기는 변곡점 추정이 가능해진 이후다. 변곡점을 알 수 있으므로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악재가 정리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마지막 4차 투자 1천만 원(20%)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시장 폭락 대비용이다. 폭락 장세에 투자할 현금이 있다면 행복한 투자자다. 단, 4차 투자는 변동성 대비용이므로 일정 수익이 달성되면 바로 환매해 추후 투자시기에 대처해야 한다.

펀드에 투자하려면 먼저 상담 역량이 뛰어나고 지속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야 한다. 힘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해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진_ **서명곤** 기자

'주식은 나무를 보고 펀드는 숲을 보고 투자한다'는 말도 있지만 펀드는 장기 투자가 기본이다.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에서 오는 시장 변동성의 위험을 제거하고 시장 하락 시에는 손실 가능성 축소, 상승 시에는 더 큰 수익을 각각 기대할 수 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환매다. 수많은 투자자가 수익을 못 내는 것은 환매를 제때에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PA_ **연합뉴스**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이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환매다. 수많은 투자자가 수익을 못 내는 것은 환매를 제때에 하지 않기 때문이다. 펀드는 수익을 크게 냈든 적게 냈든 현금으로 바꿔야 내 돈이다.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이라는 투자 격언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시기를 분산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한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펀드는 수익과 원금으로 나눠 수익은 정기예금이나 안전한 채권형펀드에 재투자한다. 원금은 MMF 등 단기 고수익 통장에 예치해 두고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 가입한 펀드 중 수익이 전망에 비해 저평가된 시장에 재투자하거나 환매 당시 가장 유망한 시장에 투자한다.

투자시기를 나눴듯이 환매도 시장 흐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반드시 2~3회 이상으로 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변곡점에 대한 고려는 필수이며 증권사 등에서 주최하는 고객 세미나 등에 참석해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핵심은 시장 전망이 아무리 좋을 때라도 분할 매도를 통해 과다를 불문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Tip _ 좋은 펀드 고르는 법

1. **과거 운용 성과가 좋은 펀드**
   최근 수익률뿐만 아니라 과거 6개월, 1년, 3년 평균 수익률을 점검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수익률이 꾸준한 펀드가 더 안전하다.

2. **운용 규모가 크고 장기간 운용된 펀드**
   운용 규모와 수익률에 별다른 상관관계는 없지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큰 규모의 펀드에 더 신경 쓰기 마련이다. 주식형 펀드는 100억 원 이상, 채권형 펀드는 1천억 원 이상 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다.

3. **각 자산운용사의 대표 펀드**
   자산운용사에서 대외 홍보 차원에서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4. **스타일이 명확한 펀드**
   가치주 펀드라면서 성장주가 더 많이 편입되지 않았는지, 배당주 펀드라면서 성장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5. **판매사가 많은 펀드**
   앞다퉈 판매하는 펀드라면 비교적 믿을 만하다.